

광주 시내버스 임단협 난항

지노위 중재 불구 입장차 커...노조 31일 파업 예고

광주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 협상이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난항을 겪고 있다. 노조측은 협상 결렬시 전국노년체전 개막일인 31일 새벽부터 파업을 예고해놓은 상태여서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광주시내버스운송조합과 노조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서구 양동 금호생명빌딩에서 지노위 중재로 마라톤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입장차가 커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임금 11.8% 인상 ▲식대 직접 지급 ▲노조전임 확대 ▲복리카드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사

측은 타 지역의 평균 임금 인상 수준인 3%를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노사 양측은 지난 3월부터 3차례 교섭을 벌였으나 노조가 지난 15일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지노위에 조정 신청을 냈다.

노조는 이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날 밤부터 30일 오전 6시까지 파업 찬반 투표를 한 뒤 31일 새벽 4시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한 상태다.

하지만 노조가 파업이라는 초강수를 두는 게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날부터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데다 31일에는 전국노년체전이 개

막될 예정이어서 대중 교통 수요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버스업계의 파업은 시민들로부터 역풍을 받을 우려도 크다.

또 광주시가 지난 2006년 12월부터 버스 수익금 관리와 일부 경영 등을 맡고 인건비 등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를 시행, 운전원들의 근무여건을 크게 개선했다는 점도 노조 측에 부담이 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파업이 감행될 경우에 대비, 평소의 65% 수준(590대)의 비상수송차량 확보, 지하철 증회 운행 및 택시부제 해제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정후식기자 who@

전국 먹는 물 공동시설 10곳중 1곳 '못 먹는 물'

광주 2곳, 전남 5곳 '부적합'

약수터 등 전국 먹는 물 공동시설 10곳 중 1곳은 수질 기준을 초과, '먹을 수 없는 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는 전체 18곳 중 2곳(11.1%)이, 전남은 73곳 중 5곳(6.8%)이 각각 수질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사용 중지 또는 금지됐다.

환경부가 2008년도 1·4분기 전국 1천645곳의 약수터, 샘터, 우물 등 먹는 물 공동시설 중 1천550곳을 대상으로 수질을 검사한 결과 10%인 155곳이 수질기준을 초과

했다고 밝혔다. 검사에서 제외된 95곳은 수원고갈, 시설준비 등으로 검사가 불가능한 곳이었다.

검사는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등 미생물, 질산성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등 유해영양물질,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증발잔류물 등 심미적 영향 물질 등 7개 항목에서 실시됐다.

수질기준 초과율은 전북이 31.3%(16곳 중 5곳)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경남(18.3%·93곳 중 17

곳), 부산(15.3%·176곳 중 27곳), 서울(11.1%·306곳 중 34곳)·광주 등이 이었다.

환경부는 수질기준 초과 이유가 먹는 물 공동시설 주변의 오염원 증가, 애완동물·야생동물의 배설물 유입 등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에는 시설개선 명령과 함께 사용중지(110곳) 또는 사용금지(43곳) 조치가 내려졌고 안전관에 경고문을 게시해 주민들에

2008년 1/4분기 수질기준 초과 '먹는 물 공동시설'

구분	장소	부적합 항목	조치내용
광주	동구 윤림동 동화사	총대장균군	사용금지
	동구 윤림동 돌샘	총대장균군	사용금지
전남	목포시 죽교동 유달산	일반세균·총대장균군	사용금지
	순천시 송광면 신령리	총대장균	사용금지
	순천시 주암면 오산 우물	총대장균	사용중지
전남	순천시 지전6동 우물	총대장균	사용중지
	순천시 지전7동 우물	총대장균	사용금지

(환경부)

게 판정 결과를 알리도록 했다. 수질기준을 초과하면 사용중지 조치를 내리고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사용금지, 계절별로 1년간 수질기준을 초과하면 폐쇄된다. 최근 연도별 1·4분기 수질기준 초과율은 ▲2005년 6.2% ▲2006년 9.5% ▲2007년 13.5% 등이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국고 보조금 부당지원·轉用 광주·전남 지자체 5곳 적발

감사원, 보조금 회수 조치

광주·전남 일부 자치단체들이 불필요한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국가 보조금 등을 부당하게 지원받거나 중소기업에 지원해야 할 국가예산을 대기업에 지원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29일 감사원이 발표한 2007년도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지원받거나 편법 사용하고 흥군, 광주 광산구, 순천시, 여수시, 구례군 등 5개 자치단체를 적발해 보조금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고흥군은 사업비의 30%를 보조받을 수 있는 '청소년수련원' 건립을 계획하고서도 사업비 88%를 보조받을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한다

고 구 국가청소위원회에 보고해 규정 보조금인 12억원 보다 23억원 많은 35억원의 지원받으려고 했다가 보조금 반환 조치를 당했다.

광주 광산구는 법상 지원대상이 아닌 고가도로 보수에 22억원을 보조받았다가 적발됐다.

순천시는 구 건설교통부 보조금 98억원 등 사업비 414억원을 들여 중소기업 등에 저렴하게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한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를 운영하면서 모 대기업에 6만여㎡를 임대하고 임대료 및 분양대금 127여억원을 사비 지원하는 반면 단지 내 토지 2만여㎡를 임대한 2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임대료 8억원을 징수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임대기준과 절차를 다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여수시도 2006년 2월 음악분수대

가 있는 오동도에 '레이저 영상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정부 보조금 7억원 등 1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나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뒤늦게 파악한 이후 사업부지를 변경했다. 그러나 '레이저 영상시설'을 관광지가 아닌 공원에서는 실시할 수 없다고 정부가 반대, 국고보조금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반환했다.

구례군은 보조금(8억원)을 지원 받은 5개 민간보조시설이 국고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했다 감사원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한편 감사원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등에 대한 2007회계연도 결산 감사 및 감사를 통해 2천72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해 총 4천137억원을 시정·변상판정하거나 환급처리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2007 소방행정 평가 광주시 1위 전남도 2위

광주시와 전남도의 소방행정이 전국 1, 2위를 각각 차지했다. 29일 양 시,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소방방재청 주관 '2007년 소방행정 종합평가'에서 16개 시도 가운데 광주시는 1위, 전남도는 2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1년간 추진한 소방혁신행진, 소방제도·예방, 화재분석관리 등 7개 분야 68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양 시·도가 고른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가운데 시는 총역인건비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도는 소방관서 및 3고대 인력 확보 등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안현주기자 ahj@

기름값 아끼려 짬통 시내버스

일부 에어컨 사용 제한

광주지역 시내버스 상당수가 고유가로 인한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무더위 속에서도 에어컨을 틀지 않고 운행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

28일 광주시와 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광주 지역 전체 10개 시내버스업체 가운데 일부 업체가 소속 운전기사의 에어컨 사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제한 방침을 정했다.

이와 관련, 지난 26일 지역 시내버스 업체 사장단은 모임을 갖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에어컨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의, 이같은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역 일부 시내버스 업체가 연료비 절감을 위해 무더위속에도 에어컨 사용을 제한, 상당수 버스가 에어컨 대신 창문을 연 채 달리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높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 업체는 에어컨을 가동할 경우 기사와 승객 모두 포상금까지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료비 절감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시민들은 최근 30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서도 버스에서 짬통더위를 견뎌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광주시는 버스업계에 에어컨 가동에 따른 시정 조치를 요구했으며, 사업조합측은 오는 31일부터 25도를 넘거나 밀폐된 차량에는 에어컨을 가동하도록 방침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윤영기기자 penfoot@

광주광역시교육청

꼭내영교육학

529-0090 개강 7월 4일

자격증은 취득하고 싶은데

www.kocis.go.kr

020144-0075-8

재혼반 11년!

영복출발 11년째

527-3388

로어 커튼 에너지 직면 구형

ANYCHE CHAIR

Anyche

기술과 정성을 바탕으로한 최상의 생활-업무용 의자